

평가원의 출제 원리 by UR dokzon

_법 제재는 이렇게 읽는 것이다.

UR dokzon in Orbi

법 지문 매뉴얼 (약식)

1) 법률 행위 with 법률 효과 & 법률 요건

→ 특정한 '법률 요건'이 만족되면, 특정한 '법률 효과'를 발현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함.

→ 모든 법 지문은 특정한 법률 행위에 대한 얘기이니, 그 법률 행위에 대해 의식적으로 법률 효과와 법률 요건을 찾아주면 글이 명확해짐.

2) 법 지문에서 Case 분류는 필수적임.

→ 여러 법률 행위를 제시해주고, 여러 상황에 올바른 법률 행위를 매치시키는 방식이 대표적인 법 지문 문제의 구성 방식임.

→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등장한 여러 법률 행위들을 명확히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지문에서 찾아내는 능력이 법률 지문의 장악력과 비례할 것.

3) '법률 요건을 만족하지 않고 법률 효과 발생'

or '법률 요건 만족했지만, 법률 효과 미발생' 등의 예외는 반드시 챙겨야 함.

→ 예외는 우리가 2)에서 찾은 '기준'을 벗어나는 항목이자, 왜 많은 법률 행위 중에서 바로 이 법률 행위가 이 '지문'에 나왔는지를 알려주는 '특이점'임.

→ 즉, 그 지문의 정체성이니, 이는 주로 <보기> 3점 문제에 출제됨.
예외가 적용되는 '이유'와 '상황'을 지문을 읽으며 반드시 정리!

4) 대립되는 법률 행위

→ 엄밀히 말해서 2)의 연장선에 대한 얘기. 비슷해 보이는 두 법률 행위 (ex. '점유개정 & 반환청구권 양도' / '일상에서의 예약 & 법적인 의미의 예약')가 나오면, 반드시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을, 지문이 다루고 있는 법률 행위의 '존재 이유'와 연관지어 해석해낸다면 그 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할 것.

UR dokzon in Orbi

법 제재 지문을 읽는 태도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아보자.

다음은 기출 지문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모든 법 지문을 같은 방법으로 독해할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구건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해보자. 법률 행위는 양방의 의사 표시가 충족되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_ 매뉴얼 1번 이때 ‘법률 효과’라 함은 ‘권리 관계의 변동’을 말한다. 즉, 채권과 채무가 새로이 생기거나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행사하거나 들어줘야 할 권리가 발생함을 뜻한다.

채권과 채무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니 누구의 기준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A와 B가 계약을 맺었다. A의 과자를 B가 돈을 주고 사는 매매 계약이다.

이때 A의 채권은 B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 채무는 과자를 B에게 줄 의무이다. 반대로 보자.

B의 채권은 A로부터 과자를 받을 권리, 채무는 돈을 A에게 줄 의무이다. 이처럼 누구 기준에서 보는지에 따라 같은 행위가 권리일 수도, 의무일 수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자.

앞으로 다양한 법 지문을 마주하면서 여러 ‘법률 행위’들을 마주할 것이다. 대부분은 이 지문에 나온 대로 ‘양방의 의사 표시 합치’를 전제로 한다. 다만, 이에 더해 다른 조건들이 등장할 것이다. 충족될 시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을 ‘법률 요건’이라 하자.

법률 요건이 충족된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때 법률 효과는 법률 행위 당사자들 간의 권리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권리 관계를 상징하는 채권과 채무 관계는 누구 기준이냐에 따라 다르므로 ‘누구’인지 확인하자.

그러므로 법 지문에 대해서 중요 시 해야 할 것은 이 지문이 설명하는 법률 행위가 어떤 법률 요건을 만족해야 어떤 법률 효과를 만들어내는 지이다. 법률 요건을 확인하자. 법률 효과는 법률 행위 당사자 중 어떤 사람 입장에서의 권리 변동인지 반드시 확인하자. 이것이 핵심이다.

방금 발췌한 내용의 지문의 전체를 살펴보자. 이것을 보면서 지금 말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고 다른 지문에서 적용해보자.

역시나 도입부는 중요하니 도입부에서 힘을 주어 글을 읽기를 바란다.

UR dokzon in Orbi

〈2019학년도 수능 첫 번째 지문〉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11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지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16.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 ②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 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17.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 ②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 ③ ㉠과 ㉡은 ㉢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 ④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 ⑤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8. ㉢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 ②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 ③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④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 ⑤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 ①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 ②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20.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 ②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
- ③ 우리 마을은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산간 지역이다.
- ④ 이 책에 나오는 옛날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 보자.
- 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Memo _

1. 도입부 보고 내용 예측해 보기

2. 문단마다 도입부와 연결성 쓰기

3. 지문 한 줄로 요약해서 쓰기

4. 출제자의 의도 문제마다 달아보기

UR dokzon in Orbi

1문단 _

1.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약속 ⊃ 계약], 공통점(Si)=의사 표시 합치 / 차이점(Di)=목적이 '법률 효과의 발생'

이처럼 전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딱밥 처리를 한 후 지문의 뒷부분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므로 법률 효과가 무엇인지 뒤에서 찾자(우리는 이미 안다).

2.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는 '양방의 의사 표시 합치'라는 [법률 요건]을 만족하면, '양 당사자가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아까 딱밥 처리한 법률 효과는 의사의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의사 표시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법률 효과]임을 여기서 알 수 있다. 물론 앞의 설명 덕에 우리 이미 알고 있었다.

2문단 _

1.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 앞에서 설명했으니 설명은 생략하겠다. 변제의 정의가 채권의 소멸이라는 것만 체크하자.

이제부터 이 지문은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설명할 것이다.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어떤 법률 요건인지(이건 이미 드러남, 양방의 의사 표시 합치), 어떤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 지문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예외 상황'이다. 예외 상황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요건을 만족하지 않았는데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2) 법률 요건을 만족했는데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다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각각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에 대해 예외가 존재하니 그 점 유의하며 지문마저 읽어보자. _매뉴얼 3번 참고

3문단 _

1.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 매매 계약이 이 지문에서 다른 법률 행위인 듯하다.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는 채권과 채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때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채무를 변제하려면, 그림 A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 이전 = 물건의 인도' 체크해두자.

Comment _

반드시 누구의 권리가 바뀌는지 사람을 체크해야 한다. 법적 지문에서 '누구의', '누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ex) 21 수능 예약 지문은 '예약상 권리자'가 누구인지 체크 안 하면 끝이다 끝.

2.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 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적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 을이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위반인 것이다. 문제 상황!! 이제 법적인 해결 방안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표현 챙겨두자. 마지막 문장의 경우 23 06 (나) 지문과 동일하다. 그 지문에서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다.'라는 표현을 보고 그러면 '왕실의 주관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고 "공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주는 발상은 체크해두자. _ not A = B

Comment_

A와 B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일 때, not A라고 함은 B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같은 사고는 국어 독서 지문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사고이니 잘 기억해두자.

앞으로도 이 지문이 아닌 다른 지문에서도 쓸 수 있는 '독해 태도'들은 Comment로 표시하겠다. 이처럼 한 지문에서 이용한 좋은 태도를 일반적인 범주로 키워 다른 지문에서도 쓸 수 있는 독해 태도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UR dokzon in Orbi

4문단 _

1.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집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 역시나 예상대로다. 국가의 공적인 물리적 실력 행사가 드러나고 있다. 실체법에서, 갖고 있는 채권의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고 / 절차법에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예상했던 국가의 공적인 물리적 행사는 절차법의 내용이었으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 양방의 의사 표시는 이 지문의 [법률 요건]이었다. 그러나 강제 집행의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법률 요건]의 예외가 드러나는 것이므로 출제 point이다.

_ 매뉴얼 3번

5문단 _

1.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㉗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㉘ 나올 수 없다.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채무 불이행의 이유가 나오고 있다. 을의 과실로 채무의 대상이 없어졌다. 이를 어려운 말로 이행 불능이라고 한다. 판결로도 이 계약이 성립하게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심지어 이행 불능이 계약 이전이었다면 계약이 무효라고 한다. 더 이상 계약이 성립하게 못하므로 판결은 채무 불이행에 대해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드러나고 있다. 계약을 강제로 실현하게 만들지 못하는 즉, 공적인 물리력도 통하지 않을 때인 이행 불능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 여기서 Case가 나뉘고 있다.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Case1: 물리력으로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음

계약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Case2: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에게 묻음.

이제 Case2를 자세히 말할 것이다. 다음 문단에서 살펴보자.

UR dokzon in Orbi

6문단 _

1.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 이행 불능에 의한 채무 불이행은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예외 상황! _ 매뉴얼 3번 [법률 효과]는 권리 관계의 변동이다. 어떤 변동이 일어났는가? 갑에게 새로운 권리인 계약 해제권이 생겼다. 이 계약 해제권을 통한 계약 해제라는 법률 행위 역시 일방의 의사 표시로 성립하니 예외이다. 일방의 의사 표시로 계약 해제라는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킨다. 일방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뜻으로 '단독 행위'라 한다고 한다.

순식간에 예외 상황이 2개나 나왔으니 아주 주목해야 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이 이행 불능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도 일종의 [법률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단, [법률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예외적인 [법률 행위]인 것이다.

7문단 _

1.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 계약이 해제되어서 채권과 채무가 없어졌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보겠다.

계약 해제는 [법률 행위]인가?

답은 그렇다. 채권과 채무가 없어졌으니 권리의 변동인 [법률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때의 [법률 요건]은 채무자의 과실로 인해 말미암은 이행 불능의 채무 불이행이다. [법률 효과]가 심지어 더 있다. 바로 원상회복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채권자에게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7문단은 '해제'라는 [법률 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문단 별로 여러 [법률 행위]가 나오고 있다. 각각의 [법률 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올바른 [법률 요건]을 매치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서 서술한 모든 [법률 행위]를 다 알아본 사람은 가히 칭찬들을 만하다.

문제와 함께 살펴보자.

16.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 3번

- ① 실체법에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 ② 절차법에 강제 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법원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 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의사 표시 없는 [법률 행위]인 이행 불능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은 '예외 상황'이었으므로 당연히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 것이다. 이를 쪼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률 효과]가 발휘되는 예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출제자의 의도: 예외 상황에 대한 이해 feat. 매뉴얼 3번

17.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5번

- ① ㉠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 ②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 ③ ㉠과 ㉡은 ㉠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 ④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 ⑤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을의 채무(소유권 이전의 의무) / ㉡ 값의 채권(해제로 인해 생긴 원상회복 청구권)

말 그대로이니 딱히 설명하지 않겠다.

2번 선지를 골랐으면 반성하자. 해제라는 단독 행위의 가장 큰 특징인 [법률 요건](의사 표시 합치) 미충족임에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라는 것을 놓친 것이니까 말이다.

출제자의 의도: 예외 상황(단독 행위)의 이해 feat. 매뉴얼 3번

UR dokzon in Orbi

18. ㉞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답: 1번

- ①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 ②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 ③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④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 ⑤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역시나 ㉞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라는 예외 상황이다. 이 이행 불능의 채무 불이행도 [법률 행위]였음을 기억하는가? 비록 의사 표시라는 [법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엄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률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아주 예외적 상황이었으며 16번 문제의 정답 선지였던 3번의 내용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출제자의 의도: 예외 상황에 대한 이해 feat. 매뉴얼 3번

예외 상황이 [법률 요건] 미충족 or [법률 효과] 미발생임을 아는 사람이 보는 예외는 그 차원이 다르다. 명심하자.

1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답: 3번

<보 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증여: 증여자만 이행 의무가 있고, 받는 사람만 채권이 있으므로 양방이 서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일반적 권리 관계와는 다름 _ 예외적임

유언: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예외적 [법률 행위]

- ①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 ②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둘 다 예외적인 [법률 행위]이다.

증여도 의무자 한정으로 변제가 필요.

예외적인 이유는 권리-의무 관계가 단일하게 존재해서이다.

출제자의 의도: 새로운 예외적 [법률 행위]에 대한 적용 feat. 매뉴얼 3번

싱겁게도 이 지문 자체는 매뉴얼 3번으로 그냥 속속 썰렸다. 이제 어려운 법 지문을 볼 것이다.
그 전에 정리해두자.

- 1)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 충족됐을 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 2) 권리 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면 그것은 법률 효과가 존재하는 것이다.
- 3) 권리와 의무 관계는 2중으로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가 존재한다. (증여)
- 4) '누구'의 권리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법률 행위의 특징은 무엇이며 예외는 존재하는가.

법은 결국 일상에서 초래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무엇이 문제 상황인지 우선 알아낸다면, 그 해결책을 법적으로 알아내기 수월할 것이다.

그러면 악명 높은 21 수능 예약 지문을 살펴보자.

매뉴얼 2를 드디어 쓸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다른 매뉴얼도 쓰이지만...!

UR dokzon in Orbi

〈2021학년도 수능 두 번째 지문〉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12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A]

2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 ③ 예약상 권리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2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은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28.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급부	㉦	㉧
본계약상 급부	㉨	식사 제공

- | | ㉦ | ㉧ | ㉨ |
|------------|-------------|-------------|----------|
| ①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없음 | 급식 대금 지급 |
| ②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없음 | 급식 제공 |
| ③ 급식 계약 승낙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없음 | 급식 제공 |
| ④ 없음 |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⑤ 없음 |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대금 지급 |

2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 ①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 ②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 ③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 ④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 ⑤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② ㉡: 올해 생일에는 고향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 ③ ㉢: 기차역 주변에 새로 생긴 상가에 가 보았다.
- ④ ㉣: 나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방법을 물어 보았다.
- ⑤ ㉤: 바닷가의 찬바람을 쐬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Memo _

1. 도입부 보고 내용 예측해 보기
2. 문단마다 도입부와 연결성 쓰기
3. 지문 한 줄로 요약해서 쓰기
4. 출제자의 의도 문제마다 달아보기

UR dokzon in Orbi

1문단 _

1.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는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채무로 작용하며, 급부를 채무자가 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다. 앞서 배운대로 채무자는 급부를 실천해야 변제할 수 있는데, 이때 급부는 주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지만, 그 예외가 있다고 한다. 예외가 무엇인지 현재 알 수 있는가? 아니다. 이렇게 앞선 내용으로 답하지 못하는 문장이 나오면 의식적으로 '떡밥 문장'으로 규정하자.

이 도입부의 떡밥 문장을 뒷내용을 읽어보며 이해해내는 것이 평가원이 요구하는 '입체적 독해'이다. 도입부에서 언제나 승부가 갈린다. 명심하자!

2문단 _

1.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권리의 발생의 원인은 [법률 행위]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대부분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로 발생한다고 한다. 이 지문은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다룰 심산인가보다.

2.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 급부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미래에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급부로 삼는 것이 낫다고 한다. 도입부를 상기하자.

떡밥 문장: 급부는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그 외'였다. 이제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권리'를 급부로 하는 계약인 '예약'을 알아볼 것이다.

여기서 흑자는 질문하곤 한다. 예약이 계약의 일종인지는 어떻게 알았나요?

지금 우리는 도입부에서 계약의 급부가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는 그 떡밥 문장의 주인공이 예약임을 안다. 본질적으로 예약은 계약 중 특이한 계약이라고 도입부에서 알려준 것이다. 그러므로 뒷문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도입부를 잘 읽은 사람은 당연히 예약은 계약의 일종임을 알았을 것이다. 도입부는 중요하다. 몇 번을 강조해도 아깝지 않다.

3.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 예약은 앞서 말했듯이 ['미래의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한' 계약을 성립시킬 권리]를 급부로 하는 계약이다. 이때 예약의 급부인 권리가 성립시키는 계약이 바로 '본계약'이라고 한다.

지금 현재 일상에서의 예약과 법적인 예약이 다르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왜 다른지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매뉴얼 4의 '기준 찾기'이다. 둘의 차이점이 어떤 [기준]으로부터 도출되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은 이미 급부가 오갔다. 돈을 냈고, 승차권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법적인 의미의 예약은 '미래의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급부이므로 '본계약의 급부 교환'은 당연히 미래에 이루어진다. 일상에서의 예약과는 다른 것이 보이는가?

기준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의 실현 시점인 것이다.

3문단 _

1.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 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 예약의 분류 기준이 나온다. 아예 기준을 대놓고 알려주고 있다. 이걸 체크 안하면 틀려 마땅하다. [기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 _ 누가? 4)의 내용이다. 앞으로 복잡한 사례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두 가지 예약을 구별할 줄 알면 된다. _ 매뉴얼 2번

→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예약에 의해 발현되는 채권이므로, 첫째 유형의 예약이라는 [법률 행위]의 [법률 효과]가 발생시키는 권리 변동이 바로 '채권'이다. 헉, 여기서. 승부가 갈린 곳이다. 기준을 잊은 자는 이때부터 독해가 되지 않는다. 저 채권은 어떤 권리인가. 바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가 이 채권인 것이다. 그게 기준이었으니까... 이걸 몰랐다면 무슨 저 채권이 갑자기 왜 나왔고, 무슨 권리인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 급식 업체가 회사에게 본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므로 예약상 권리자는 급식 업체이다.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라고 했으니까 말이다. 본계약의 내용도 나왔다.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회사가 대금을 주는 것이 본계약일 것이다. 그러한 본계약을 성립시킬 권리를 확보하는 계약이 '예약'인 것이다.

어려웠어도 이 부분 찬찬히 읽어보길 권한다. 여러 법 지문을 의미 없이 푸는 것보다 여기 써놓은 [법률 행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될 것이다.

2.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 이번 예약의 유형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가 예약 완결권이라고 한다. 아까 1번 유형의 예약상 권리자가 갖는 권리는 '예약상 권리자인 급식 업체가 회사에게 승낙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까 회사가 급식 업체의 요구를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이다. 항상 권리와 의무는 같이 움직임을 기억하자. 이에 반해 2번 유형은 예약상 권리자가 예약 완결권이라는 권리를 가진다 했으므로 앞선 채권과 예약 완결권은 어떻게 다른지 찾아내야 한다.

→ 1번 유형은 급식 업체가 요구하고 회사가 응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채권이었다. 채권이라는 함은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두 당사자가 모두 등장한다. 하지만, 2번 유형은 그저 예약상 권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충분하다. 예외적인 상황이다. 일방의 의사 표시. 계약은 양방의 의사 표시 합치가 [법률 요건] 아니었는가? 따라서 예외적 상황으로 체크해두어야 한다.

→ 그래서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해서 본계약의 급부를 요구하면, 식당의 승낙이라는 개념 없이 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당은 식사를 제공한다는 본계약의 급부를 이행해야 한다.

[A]는 결국 두 가지 예약이 나온다. Case 분류를 요구하는 것이다. _ 매뉴얼 2
기준은 뭐였는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가 채권인지, 예약 완결권인지의 문제였다.
그러면 채권과 예약 완결권은 무엇이 다른가?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사례가 같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사례로 이해해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1번 예약의 경우 예약상 권리자인 급식 업체가 본계약인 '음식을 출테니 돈을 내놔라'를 성립시키려면 회사에다가 요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승낙할 의무가 있다. 채권이니 채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2번 예약의 경우 이런 채권이 아니라 더 강력한 예약 완결권이다. 요구할 필요없이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기만 해도(승낙의 과정이 없어도), 본계약이 성립한다. 이해가 안 된다면 반드시 지문으로 돌아가 다시 보아야 한다. 23 수능도 이에 준하면 준했지, 결코 더 쉬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UR dokzon in Orbi

4문단 _

1.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 예약도 계약처럼 급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문제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앞선 지문처럼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또 [기준]을 제시한다. 예약의 유형에 따라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1번 예약과 2번 예약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채무자가 지는 순간, 원래 있던 채무는 상실되고, 돈으로 대신 물어주는 손해 배상 채무가 생긴다고 한다.

5문단 _

1.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 예약이 방해되면, 그 타인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그러면 돈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마치 앞서 나온 손해배상 채무처럼 말이다. 그럼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 채무의 차이는 무엇인가? 손해배상 채무는 채무자가, 불법행위책임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지는 것이다.

‘누가’와 ‘누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 _ 4)

그리고 비슷해보이는 개념이 등장하면, 반드시 차이를 가를 ‘기준’을 찾아내야 한다. 여기서의 [기준]은 ‘계약의 당사자인지, 아닌지’였다.

→ 어쨌든, 둘 모두 급부가 ‘손해를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므로 급부가 동일하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 책임을 저도 그 채무는 변제된다.

길고 어려운 내용 이해하느라 고생 많았다. 혹여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반드시 돌아가 이해를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 지문에 대한 공부가 된다. 포기하지 말길.

UR dokzon in Orbi

2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5번

-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 ③ 예약상 권리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불법행위책임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 대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4) '누가', '누구에게'는 법 지문에서 정말 중요하다.

출제자의 의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파악했는가

2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3번

-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

어차피 주제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그만 말하고 싶다. 저 부분의 핵심은 법적 예약과 일상에서의 예약의 차이였다. 둘의 차이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인 급부가 미래에 충족되는지, 현재에 충족되는지의 차이였다.

3번 선지의 경우, 설명이 혼합되어 있다. 계약을 성립시킨 것까지는 맞지만, 그러므로 급부가 현재에 충족된 것인지 미래에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출제자의 의도: [기준]을 세워 비슷해보이는 두 개념을 나눌 수 있는가? _매뉴얼 4번

UR dokzon in Orbi

28.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급부	ㄱ	ㄴ
본계약상 급부	ㄷ	식사 제공

- | ㄱ | ㄴ | ㄷ |
|------------|-------------|----------|
| ①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급식 대금 지급 |
| ②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급식 제공 |
| ③ 급식 계약 승낙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④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⑤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대금 지급 |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 항상 권리와 의무는 쌍으로 존재한다. 3). 그 중 예약상 권리자의 입장에서 살펴라 했으므로 4), [A]에 제시된 사례를 이용해보자.

1번 예약의 예약상 급부는 예약으로 발생된 채권의 급부 내용인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따라서 ㄱ에는 급식 계약 승낙이 답이다.

한편, 2번 예약은 그런 것 없다. 그냥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예외적 상황) 본계약이 성립한다. ㄴ은 따라서 없다.

1번 예약의 본계약은 '나는 음식을 줄테니 너는 돈을 내놔라'였다. 그러니 예약상 권리자인 급식 업체가 요구하는 것은 돈을 내놓으라는 것일테다. 따라서 ㄷ은 급식 대금 지급이다.

출제자의 의도: 권리의 주체를 아는가? [기준]으로 Case를 분류할 수 있는가?

UR dokzon in Orbi

29. 위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답: 4번

<보 기>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㉔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2번 유형의 예약이다.
도착하면 바로 머리를 깎아주니까.

타인인 병이 끼어들었다. 위법성도 충족되었다.

을은 손해배상 채무를 져야 하고, 병은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 ① 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 ② 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 ③ 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 ④ 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 ⑤ 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은 불법행위책임이라고 그렇게 지문에서 말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긴장된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을 잃어버린다. [기준]이 '계약 당사자인지 아닌지'였음을 잊었다면, 이런 명확한 Case 분류는 쉽지 않다. 그러니 [기준]은 반드시 잡자.

특히 이 지문은 지문 내에서 자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비교적 '친절한' 지문이다.
점점 지문이 압축적으로 변하고 있는 요즘, 스스로 기준을 잡는 능력까지 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기준]을 잡는 방법은 둘의 차이점을 살피는 것뿐임을 잊지 말자.

출제자의 의도: [기준]을 잡아 Case 분류를 할 수 있는가?

UR dokzon in Orbi

다른 지문들로 여태 배운 내용들을 체화해보도록 하자. 건투를 빈다.

<2019학년도 6월 두 번째 지문>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06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 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법(私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 법규'라고 한다. 공인 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 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공인 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給付)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공인 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 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 법규이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의 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② 임의 법규가 단속 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 ③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단속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 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⑤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23. 윗글을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 ㄴ.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건물주는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 ㄷ.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 ㄹ.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건물주는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ㄴ, ㄹ

24.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 ② 계약 당사자들의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적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 ④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⑤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



25.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하였다.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셋째, 농지를 빌려 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 ①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私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 ②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③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겠군.
- ④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⑤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26.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커피를 쏟아서 옷에 얼룩이 졌다.
- ② 네게 계속 신세만 지기가 미안하다.
- ③ 우리는 그 문제로 원수를 지게 되었다.
- ④ 아이들은 배낭을 진 채 여행을 떠났다.
- ⑤ 나는 조장으로서 큰 부담을 지고 있다.

UR dokzon in Orbi

Memo _

1. 도입부 보고 내용 예측해 보기
2. 문단마다 도입부와 연결성 쓰기
3. 지문 한 줄로 요약해서 쓰기
4. 출제자의 의도 문제마다 달아보기

UR dokzon in Orbi

<2020학년도 9월 두 번째 지문>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09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28.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29.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나함으로써 발전한다.

UK dokzon in URB1

Memo _

1. 도입부 보고 내용 예측해 보기
2. 문단마다 도입부와 연결성 쓰기
3. 지문 한 줄로 요약해서 쓰기
4. 출제자의 의도 문제마다 달아보기

UR dokzon in Orbi

빠른 정답

2019 06 _ 3/2/1/3/5

2020 09 _ 5/5/2/3/1

UR dokzon in Orbi